

## [한국일보] 中 쑤저우에 26 만㎡ 규모 녹색 코리아타운 조성

중국 쑤저우(蘇州)에서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총면적 26 만㎡의 '녹색 코리아타운'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(주)CKT가 한중 양국 경제계 주요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사업의 공개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.

(주)CKT는 한중 수교 18주년(8월 23일)을 맞아 한중 녹색기업의 동반발전에 토대 역할을 할 '쑤저우 코리아 타운' 건설을 포함해 한중 기업들의 녹색협력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2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'한중 녹색기업의 동반상승'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.

(주)CKT와 칭화(靑華)대학 기업집단의 칭윈(靑雲)창투, 서울중국학중심(SCCS, 양필승)이 공동주최하는 이 세미나에는 송권 칭화대학기금 부이사장과 예동 칭윈창투 총재 등이 참석해 양국 간 녹색 산업의 협력 방안과 이를 위한 핵심사업인 '한중녹색과기원'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

또 SK에너지, 포스코파워, 현대.기아자동차, LG화학, CJ, 유니슨 등 한국의 대표적 녹색기업과 회계.컨설팅업체 KPMG의 경영진이 참석해 각사의 녹색사업 현황과 중국 진출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.이번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녹색 코리아타운은 쑤저우 공업원구 웨이팅진에 대지면적 17만 2천 842㎡, 총 면적 26만 4천 470㎡ 규모로 추진되며 스마트그리드(지능형전력망), 신재생에너지, 녹색 주거.생활공간 등 최첨단

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복합 지구다.

코리아타운의 핵심시설이 될 '한중녹색과기원'은 한중 녹색기업의 기술 협력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, 한국과 중국 및 구미 녹색경영기업의 개별

연구개발(R&D 센터) 클러스터, 한중녹색창업센터, 전시관 및 녹색 미술관 등 3 부분으로 구성된다.본부 역할을 하는 '본사(總部) 기지형 시설'에는 총 8 개동 건물에 한국 기업 5 개, 중국 기업 1 개, 다국적 기업 1 개, 한중 연합 연구기관 1 개 등 양국 녹색 대기업이 연구개발(R&D)과 상품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공간이 조성된다.양국의 녹색 벤처 기업들을 위한 R&D 및 육성 거점인 '창업센터'에는 한국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, 법률, 컨설팅 등 인프라와 한국기술거래소, 상하이 기술거래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.또 최신 녹색 상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'상설전시장 & 컨벤션 센터'에서는 각종 자료와 기업 홍보물의 공동 전시, 설명회 등이 이뤄지고, 친환경 재료나 친환경 테마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'녹색 미술관 & 조각 공원'도 들어선다.㈜CKT 와 칭화대학기업집단, 베이징 셴인신(深銀信)투자집단은 쑤저우 이외에도 베이징, 칭다오 등에서도 대규모 코리아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.㈜CKT 관계자는 "녹색산업의 세계 최대 시장이자 기술 선진국인 중국의 기업과 구체적인 합작에 참여하려는 한국 기업의 의지가 강하다"며 "녹색산업은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합작은 중국진출의 필수요소"라고 말했다.

